

협회행사 보고 : 2003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우리협회는 6월 4일(수) 오후 2시 COEX 세미나실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출판 산업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인의 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의 “출판산업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 출판계 입장을 중심으로”와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 과장의 “출판산업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계 입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곽철완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조문숙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정보봉사과장, 한혜경 도서출판 이체 대표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정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출판산업의 발전저해요인들로, 첫째,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둘째, 도서관계의 낙후성, 셋째, 한국의 다매체 경쟁의 미디어환경이라고 지적하였다.

도서관운동이 출판계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도서관운동의 배경에는 종이 책의 고유한 가치가 다시금 확인되고, 문화인프라로서 도서관을 되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출판산업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도서관 장서체계와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도서관은 출판산업의 '제도시장'으로서 출판산업발전의 최후의 보루이다. 세계 각국이 도서관의 확충과 독서문화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화시대 문화인프라의 붕괴를 방지하여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자본'

을 고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읽을 수 있으나 읽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능적 문맹인'이 양산되는 원인은 요즈음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시청각미디어(TV)와 인터넷에 빼앗기게 됨으로써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직관과 느낌이 강화되는 반면에 논리와 분석은 약화되며, 인간의 원천적 문화기술인 읽기와 쓰기가 퇴보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협력해 가야 할 현안으로 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질적 내실화, 유통서지DB의 구축, 학술출판의 진흥, 그리고 이를 위한 상설 '출판·도서관 협력위원회' 운영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확충과 도서구입비의 대폭확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독서운동의 전개, 학술출판의 육성을 위한 출판진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서점의 육성보호를 위한 획기적 정책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출판산업계와 도서관계가 힘을 합해서 숙의하고 목소리를 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이숙현 과장은 발제에서 출판계에 대한 바람을 몇 가지 언급하였다. 첫째, 보다 양질의 도서를 출판해 줄 것. 둘째, 신간서적을 발간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간 자료의 표준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출판계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출판된 자료의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적어도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공중에 이용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출판사에서는 출판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누락 없이 납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는 자료 확충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출판시장으로서 그리고 이용자의 독서진흥을 통한 새로운 출판 수요창조 등을 통해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출판계에서도 도서관 업무들이 궁극적으로 출판계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도서관과 출판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광철완 교수는 그 동안 도서관과 출판업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도서관은 출판사가 존재해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이용자가 구입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도서관이 출판물 판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서관 수가 증가하는 만큼 출판물 구입이 증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들었다. 둘째, 출판물의 급속한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도서관이 서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대차를 실시함으로써 각 도서관이 구입하는 도서의 양이 감소되었다. 셋째,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최근에 많은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인쇄물의 소장 비율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전

자자료에 대한 구입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또한 국내의 출판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출판업계가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출판업계가 도서관을 출판물의 홍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 자료 보존 기능과 이용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출판사는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그 도서를 보고 자기 집에 소장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표준적인 서지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도서관계의 과제로 도서관 증설, 자료구입비 증액, 지식문화 서비스센터 기능 강화, 도서관 행정체계 정립 및 지역의 도서관 커뮤니티 구축, 법제 개선, 납본통계 정기 공표, 양서 추천 기능의 강화, CIP제도 효율화를 들었다. 출판계의 과제로는 도서관 및 학교 공급용 양질의 도서(특히 시리즈도서) 개발, 공공도서관에 대해 할인 판매하는 모순 시정, 도서 해제정보의 권말수록, 전자책 이용환경의 정비를 들었다. 공동협력 과제로는 독서정보의 피드백 시스템 확립, 독서운동, 독서교육, 미디어 이용교육의 공동실시,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청소년 독서환경 만들기, 기업독서 활성화, '국가독서진흥위원회'(가칭) 설치, '독서기금' 신설 및 후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직/단체별 '이달의 권장도서' 제도화 운동, 공공도서관 중심의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조문숙 과장은 도서관은 출판산업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라는 동반자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평균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장서개발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연간 장서확충계획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일반자료의 연간 발행 종수는 18,700종으로(2002년도) 나타나는데 이는 권차 사항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서개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혜경 대표는 출판계·도서관계 간 협조와 방법에 대해 첫째, 도서관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과 준비된 구매를 들었다. 도서관의 구입은 일반인들의 구매 행위와 달라 신간이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즉각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서지사항을 신속히 입수하여 준비된 목록으로 구매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였다. 둘째, 도서정보 DB의 신속한 정리 필요를 들었다. CIP 부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CIP를 부여받는 도서와 출판사에 한해 도서관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특혜를 주는 등의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셋째, 도서관과 출판

계의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판계는 이미 도서관이 주요 고객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고, 도서관 사서들과의 횡적 연대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도서 구매(납품)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들었다. 양질의 검색을 보장하는 MARC의 품질보다는 납품 조건 맞추기에 급급하니, 업계 내에 출혈경쟁을 자초하여 유통업체들은 저마진(혹은 노마진)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도서 구입과 납품상의 선정 기준이 “최저가 입찰”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여 납품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동기 부여는, 납품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신속하게 신간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문화요구, 기본권을 충족시켜 주는 일은 문화사업 주체들의 협조 속에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글 : 심효정, shjcap@hitel.net)

알림

도서관문화를 통해 행사 소식을 상세히 알리고 싶은 도서관·단체·개인은 도서관 문화 편집실로 행사보고서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원고 매수는 5~10매 이내로 해주십시오.

- *전화 : 02-535-4868
- *전송 : 02-535-5616
- *E-mail : w3master@korla.or.kr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 *담당 : 심효정